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August 2024 Issue | Vol. 64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예산 적자, 7개월 만에 6,430억 페소로 확대 —page 1
- 외국 상공회의소, 상원에 지연된 연결성 법안 처리 촉구 —page 2
- 하원, 상원 제안의 CREATE MORE 법안 채택 안 해 — page 2-3
- 동남아시아 수출 수익, 연말까지 보험세 유지할 것 — page 4
- 필리핀, UAE 9월 중순에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 예정 — page 4-5
- 8개 외국 및 국내 기업, 탐사 계약에 관심 — 에너지부 — page 5-6
- 관광객을 위한 부가가치세(VAT) 환급 제도 검토 중 — page 6

예산 적자, 7개월 만에 6,430억 페소로 확대

August 27, 2024 | Louise Maureen Simeon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정부는 1월부터 7월까지 6,430억 페소의 높은 예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 수입 증가가 지출 확대를 앞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습니다.

어제 열린 상원 재정 위원회 청문회에서 랄프 렉토 재무 장관은 7개월 동안 정부가 6,428억 페소의 더 큰 예산 적자를 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5,995억 페소보다 7.2%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 적자는 정부가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며, 그 속도는 약간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7월 말까지의 총 수입은 2조 2,700억 페소였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15% 증가한 2조 6,100억 페소 나타났으며, 이는 세수와 비세수 수입 모두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수입의 대부분인 86%는 2조 2,400억 페소의 세수에서 나왔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비세수 수입은 정부 소유 또는 통제 기업의 배당금 덕분에 45% 급증하여 3,688억 페소에 달했습니다.



During the Senate committee on finance hearing yesterday, Finance Secretary Ralph Recto said the government incurred a higher budget shortfall of P642.8 billion in the seven-month period, 7.2 percent higher than the P599.5 billion in the same period last year.

Philstar.com / Jovannie Lambayan, file

국세청(BIR)의 수입은 거의 13% 증가하여 1조 6,800억 페소에 달했으며, 관세청(BOC)은 수입이 거의 6% 증가하여 5,359억 페소에 이르렀습니다.

재무부가 창출한 수입은 28% 증가하여 1,838억 페소에 달했으며, 민영화 수익 및 수수료를 포함한 기타 부처의 수입은 66% 증가하여 1,850억 페소를 기록했습니다.

렉토 재무 장관은 국세청, 관세청, 재무부, 그리고 국가 운영 기업들의 성과 덕분에 정부가 올해의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렉토 장관은 “이 성과는 국세청과 관세청의 디지털화 전략, 그리고 수익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 덕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수익 징수 전략을 강화함에 따라 중기적으로 연평균 10.3%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익 비율은 올해 16%에서 2028년 행정부 종료 시점에는 17%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7개월 동안의 정부 지출은 13.2% 증가하여 3조 2,500억 페소에 달했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재무부(DOF)는 2025년을 위한 337억 5,000만 페소의 예산을 제안했으며, 이는 올해 할당된 279억 4,000만 페소보다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제안된 예산 하에서 재무부의 새로운 일반 세출은 290억 페소로, 핵심 운영과 우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BIR)과 관세청(BOC)의 수익 관리 향상을 위한 디지털화 강화, 재무부의 더 나은 금융 자산 및 부채 관리, 그리고 지방 정부 재무국의 지방 재정 관리 개선을 위한 재무부의 주요 우선 과제와 일치합니다.

제안된 예산의 약 41.4%는 인건비에, 37.9%는 유지 및 기타 운영 비용에, 20.6%는 자본 지출에 할당되었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8/28/2380990/budget-gap-widens-p643-billion-7-months>

외국 상공회의소, 상원에 지연된 연결성 법안 처리 촉구

August 29, 2024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UPKLYAK-FREEPIK

연합 외국 상공회의소(JFC)는 상원이 8월 5일 알란 피터 S. 카예타노 의원의 발의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열린 데이터 전송법(Open Access in Data Transmission Act), 즉 코넥타돈 핀오이 법안에 대한 진전을 촉구했습니다.

JFC는 목요일 성명에서 “외국 상공회의소는 행정부의 지원과 국가 경제 개발청(NEDA)의 주요 추진력을 고려하여 코넥타돈 핀오이 법안의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디지털화 요청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안은 광대역 네트워크 운영자의 라이선스를 간소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업을 용이하게 하며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하원은 2022년 12월에 이 법안의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은 일치하고 있으며, 상원 의장인 프란시스 G. 에스쿠데로가 코넥타돈 핀오이 법안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라고 JFC는 말했습니다.

현재 상정되어 있는 상원 법안 제2699호는 네트워크 운영자를 유치하여 필리핀의 인터넷 회복력과 보안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FC는 “코넥타돈 핀오이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저렴한 인터넷을 지역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네트워크 운영자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라디오 주파수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인프라 공유를 촉진하려고 합니다.

법안은 제19대 의회에서 통과를 우선시하는 법안 중 하나로, 입법-행정 개발 자문 위원회(Legislative-Executive Development Advisory Council)에서 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 필리핀 수출업자 연맹(Philexport), 필리핀 고용주 연맹(ECOP)도 상원 발의 이후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PCCI 회장인 에누니나 V. 만지오(Enunina V. Mangio)는 이 법안이 국내 기업의 99.5%를 차지하는 미세,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온라인으로 만드는 것은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코넥타돈 핀오이 법안이 있으면 시골 지역의 작은 기업들도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고 전자 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ECOP 회장 에드가르도 G. 락손(Edgar G. Lacson)은 이러한 조치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AI)의 힘을 활용하려면 강력한 연결성이 필요합니다. 코넥타돈 핀오이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AI와 다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락손 회장은 말했습니다.

“필리핀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코넥타돈 핀오이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제공하여 수출업체들이 최신 기술에 접근하고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필렉스포트 회장 세르지오 R. 오르티즈-루이스 주니어(Sergio R. Ortiz-Luis, Jr.)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08/29/616997/foreign-chambers-urge-senate-to-work-on-stalled-connectivity-measure/>

하원, 상원 제안의 CREATE MORE 법안 채택 안 해

August 29, 2024 | Filane Mikee Cervantes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하원은 상원 제안의 기업 회복 및 세금 인센티브 법안(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to Maximize Opportunities for Reinvigorating the Economy, CREATE MORE 법안)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원 관계자가 목요일에 밝혔습니다.

하원 예산 위원회 위원장 조이 살세다(Joey Salceda)는 성명에서 하원 대표단이 CREATE MORE 법안의 상원과 하원 버전 간의 원칙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곧 열릴 양원 합동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3]

하원, 상원 제안의 CREATE MORE 법안 채택 안 해

[Cont. from page 2]

CREATE MORE 법안은 입법-행정 개발 자문 위원회에서 “최우선”으로 승인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에 제공되는 세금 및 행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부가가치세(VAT) 인센티브 시행에 관한 규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살세다 위원장에 따르면, 상원 제안의 거부 이유 중 하나는 “국경을 넘는 원칙(cross-border doctrine)”이 여전히 법으로 남아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세다 위원장은 하원 제안이 생태 공단 및 자유 무역 구역을 포함한 별도의 세관 지역을 정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원이 별도의 세관 지역을 설정한 특별 생태 공단 법률에서 이를 전면 폐지하고, 하원의 별도의 세관 지역 정의를 삭제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은 결국 그러한 특별 법률의 폐지를 제거했을 뿐 하원에서 설정한 주요 원칙에 대한 입장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상원 제안대로 채택하면 우리는 혼란스러운 현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살세다는 상원 제안이 사실상 국제 운송업체를 위한 석유의 관세 및 VAT 면세, 그러나 “특수 결속된” 수입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수입 시 연료 표시가 없기 때문에, 상원 제안은 연료가 무표시된 출처에 대해 법 집행에 혼란을 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살세다는 하원 청문회에서 세관 결속 창고 시스템이 2010-2019년 동안 최대 PHP357억의 수익 손실을 초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이 시스템이 여전히 허용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사에서 이미 밀수를 초래하고 허용하는 정책으로 판명된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RBELT 제안

한편, 살세다 위원장은 제조업 부문이 등록 사업체 지방세(RBELT) 제안에 대해 제기한 우려를 강조하며, 현재 지방 정부 단체(LGU)에서 설정한 세율이 CREATE MORE 법안에서 제안된 2% 세율보다 낮을 경우 적용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RBELT는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장의 타당성을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매출 총이익에 기반한 세금에 민감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낮은 단일 숫자의 마진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살세다는 제조업 부문이 또한 법안이 지방 정부 단체(LGU)에 세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매우 명확하게” 부여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방 정부 단체의 재정 자율성에 따라 보유된 사항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살세다는 하원이 “시행 규칙과 규정(IRR)에 맡길 수 없는 다른 논리적 불일치나 모호함”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세금 개혁을 통과시킬 때는 연말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개혁을 완료해야 하는 압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한 달의 회기와 이 회계 연도가 끝나기 전까지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CREATE MORE는 CREATE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법안으로, 이를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원 관계자는 말라카냥과 밀접히 협력할 것이며, 특히 투자 및 경제 문제를 담당하는 대통령 특별 보좌관 사무소(OSAPIEA)로부터의 피드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OSAPIEA의 의견을 가장 높은 고려와 우선 사항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원 대표단이 확고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chairperson Joey Salceda (File photo courtesy of House Press and Public Affairs Bureau)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32242>

동남아시아 수출 수익, 연말까지 보험세 유지할 것

August 29, 2024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Container vessel approaching the berth in the Port of Manila, North Terminal.

영국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에 따르면,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수출 수익 성장률은 내년 말까지 계속해서 완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동남아시아 수출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브리핑에서 수출 성장은 계속될 것이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진 경제국의 가세가 계속해서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주요 소비 결정을 내리는 데 덜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반도체 사이클의 상승 효과가 향후 1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수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강력한 호재가 거의 없으며, 통화 완화 정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지연 효과를 고려할 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양호해 보이지만, 선진 경제국의 가세는 여전히 큰 소비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수출 성장의 증가폭은 2025년 말까지 완만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아시아 수출이 월별 기준으로 0.6% 증가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주로 동남아시아 수출이 월별 기준으로 8.7%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제품 측면에서, 싱크탱크는 반도체 사이클의 상승에 따라 전자 수출이 지역의 주요 밝은 점으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사용 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 성장은 3분기 초에도 여전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미국으로의 자본재 수출도 해당 지역의 자본 지출 활동이 견조한 덕분에 증가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필리핀 통계청(PSA)은 필리핀의 수출 수익 성장이 2024년 6월에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PSA는 수출 수익 성장률이 2024년 6월에 17.3% 감소했으며, 이는 2023년 4월의 20.3% 축소 이후 최저치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6월의 수출 수익은 56억 5,660만 달러로, 2023년 6월의 67억 3,000만 달러보다 낮았습니다.

2024년 5월과 2023년 6월의 총 수출 판매는 각각 연간 3.1%와 0.2%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2024년의 수출 수익은 364억 1,000만 달러로, 2023년의 353억 4,000만 달러보다 3% 성장했습니다.

PSA는 수출 가치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인 상품군이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인 전자 제품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www.businessmirror.com.ph/2024/08/07/phl-export-earnings-hit-14-month-low-in-june/)

Image credits: [Oana Ungureanu](#) | [Dreamstime.com](#)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8/29/sea-export-earnings-to-stay-modest-till-yearend/>

필리핀, UAE 9월 중순에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 예정

August 29, 2024 | Alden M. Monzon @AldenMonzonINQ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수요일에 한 고위 무역 관계자는 필리핀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계획에 대한 다음 협상 라운드가 다음 달 중순 두바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진행 중인 양자 협정의 시장 접근 조항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필리핀 측 협상을 이끌고 있는 무역 차관 앨런 제프티(Allan Gepty)는 인콰이어러(Inquirer)와의 인터뷰에서 9월 16일에 중동 국가의 협상 대표들과 만나 종합 경제 동반자 협정(CEPA)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ont. page 5]



The Philippine and United Arab Emirates flags | INQUIRER FILE PHOTO

필리핀, UAE 9월 중순에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 예정

[Cont. from page 4]

제프티는 인콰이어러에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는 시장 접근 협상에 집중하고, 텍스트 기반의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UAE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상품 무역 외에도 필리핀 전문가와 해외 시장에 접근하거나 글로벌 가치 사슬에 통합되기를 원하는 마이크로,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10월에 열릴 예정인 4차 협상 라운드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는 아마도 마닐라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과 UAE의 FTA 협상 대표들은 올해 이미 두 차례 협상 회의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CEPA 협상 라운드는 5월 두바이에서 3일 동안 진행되었고, 두 번째는 7월 중순 마닐라에서 열렸으며, 세 번째는 원래 8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인터뷰에서 제프티는 필리핀이 CEPA 하에 중동 국가에서 수출할 할랄 관련 제품의 시장 접근을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은 또한 열대 과일, 의류, 고급 소비재인 명품 시계, 벨트, 가죽 제품 등 다른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EPA가 추진된다면, 필리핀의 네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이며, 2023년 필리핀-한국 FTA, 2016년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2006년 필리핀-일본 경제동반자협정(PJEPA)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과 UAE 간의 양국 간 무역은 2023년에 18억 8천만 달러에 달하며, 수출은 3억 4천1백97만 달러, 수입은 15억 4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세관위원회는 금요일에 CEPA에 대한 공공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당사자들은 9월 4일까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77168/philippines-uae-set-third-round-of-fta-negotiations-mid-sept](https://business.inquirer.net/477168/philippines-uae-set-third-round-of-fta-negotiations-mid-sept)

9개 외국 및 국내 기업, 탐사 계약에 관심 — 에너지부

August 29, 2024 | Alden M. Monzon @AldenMonzonINQ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아홉 개 기업이 필리핀 제1회 방글라모로 자치 지역(BARMM) 전통 에너지 입찰 라운드 및 2024년 필리핀 입찰 라운드에 대한 석유 서비스 계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에너지부(DOE)는 수요일에 신청서 접수 개시를 발표하면서 2024년 필리핀 입찰 라운드에 대해 여섯 개 외국 기업이 입찰 제안을 제출했으며, 세 개 로컬 기업이 제1회 BARMM 입찰 라운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1회 BARMM 입찰 라운드에서는 세 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들은 미리 정해진 지역(PDA) 1(코타바토 분지), PDA 2(솔루 해 분지), PDA 3(솔루 해 분지)에 해당합니다.

DOE는 제1회 BARMM 입찰 라운드에 입찰 제안을 제출한 세 개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신청서는 자격이 있다고 평가되었으나, 추가적인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2024년 필리핀 입찰 라운드에서는 중앙 루손 지역의 원자력 수소 탐사를 위한 서비스 계약(SC) 신청서 다섯 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중 세 개는 PDA-PH-1을 위한 것이고, 두 개는 PDA-PH-2를 위한 것입니다.

이들 신청서도 완성도 검토를 통과했으며, 추가적인 실질적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PDA-PD-2(알레그리아 필드)에 대한 여섯 번째 신청서는 문서가 불완전하여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Cont. page 6]

9개 외국 및 국내 기업, 탐사 계약에 관심 — 에너지부

[Cont. from page 5]

DOE는 자격을 갖춘 모든 신청서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기술적, 재정적 평가가 4분기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평가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신청자들은 대통령실에 추천될 것입니다.

“수소와 석유 탐사 및 생산 분야에서 잘 알려진 국제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이번 입찰 라운드에 참여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DOE의 엘레산드로 세일즈 차관이 말했습니다.

DOE는 “우리는 아직 입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입찰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필리핀 전통 에너지 계약 프로그램의 지명 절차를 통해 석유 서비스 계약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청을 계속해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8/29/9-foreign-local-firms-keen-on-exploration-deals-doe/](https://businessmirror.com.ph/2024/08/29/9-foreign-local-firms-keen-on-exploration-deals-doe/)

관광객을 위한 부가가치세(VAT) 환급 제도 검토 중

August 30, 2024 | Janine Alexis Miguel | The Manila Times

부가가치세(VAT) 환급 제도가 관광객을 위해 도입되면 필리핀의 경제 활동이 촉진되고, 필리핀의 아시아 최고의 쇼핑 목적지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목요일에 밝혔습니다.

The Manila Times®

프레데릭 고(Frederick Go) 대통령의 투자 및 경제 문제 특별 보좌관은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소매 및 관광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나라는 관광객을 위한 VAT 환급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쇼핑 수도가 되기 위해 매우 기본적이고 fundamental한 것입니다.”라고 고 보좌관이 제30회 전국 소매 컨퍼런스 및 스토어 아시아 엑스포(30th National Retail Conference and Stores Asia Expo)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VAT 환급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 묻자, 고 보좌관은 국제 표준이 일반적으로 VAT 지급액의 60~90% 범위라고 답했습니다.

고 보좌관은 제도가 승인되면, 관광부가 VAT 환급 법안의 주관 기관이 될 것이며, 재무부가 국세청을 통해 제도의 시행과 규제를 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 제도가 필리핀에 명품 브랜드를 유치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VAT 환급이 마닐라를 고급 소비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필리핀 소매업체 협회(PRA)의 로베르토 클라우디오(Roberto Claudio) 회장은 자국의 목적지로 필리핀을 선택하도록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 VAT 환급 제도를 채택할 것을 정부에 권고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VAT 환급 제도는 관광객 유입률을 높일 것입니다. ... 경제 전체에 대한 이익은 엄청날 것이며, 우리는 소매업체로서 가장 앞선 곳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클라우디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쇼핑이 관광객의 두 번째 큰 지출 항목으로, 관광지과 리조트 방문, 식사와 함께 고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고 보좌관은 필리핀을 관광객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 비자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시아 또는 세계의 쇼핑 수도가 되고 싶다면, 이 두 가지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체적으로 관광객의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다른 분야에도 혜택을 줄 것입니다. 고 보좌관은 “관광이 말 그대로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즉,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증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중 하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4/08/30/business/top-business/vat-refund-scheme-eyed-for-tourists/1967810](https://www.manilatimes.net/2024/08/30/business/top-business/vat-refund-scheme-eyed-for-tourists/1967810)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200 MW Cebu CFBC Power Plant



ENERGIZING LIVES,
POWERING COMMUNITIES



63.3MW Calatagan Solar Farm